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동열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동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중앙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 3월19일 본부 제41차 정기총회

### 이사회, 일정 확정... 결산보고·예산안 등 승인 제28대 회장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 추천

제28대 회장을 선출하는 본부 동창회 제41차 정기총회가 오는 3월 1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거행된다.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30분 같은 호텔 2층 회관홀에서 박동열 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주재로 열린 회기 결산이사회는 결산보고 및 예산안과 제41차 정기총회 일정, 신임 회장 추천 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박동열 회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는 제41차 정기총회는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키는 뜻깊은 행사"라며 "국내외 용마가족들은 이를 전환점으로 적극 동참하고 뜨거운 성원을 한결같이 쏟아 달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주요의안 심의를 통해 △2003년 본부운영(1억3,900여만원)등 결산보고(감사보고: 박봉우 감사 - 10회) △2004년 본부운영(1억9,150여만원) 등 예산안 △본부 제41차 정기총회 3월 19일 개최 △제28대 본부회장으로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부산가스개발(주) 회장) 추천 등 주요의안을 승인했다.

차기 본부회장으로 추천을 받은 정 수석부회장은 수락인사에서 "조직활성화를 위해 동문들의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능 간 정보교류를 통한 용마가족의 편익을 촉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토의에서 김경진 이사(27회·본부 각 동교회 총무 모임인 총무협의회 간사장)는 △본부 사무국 부총무 임명과 회보의 각

동기회 발송 부수 조정 및 회원제 도입 등을, △정인식 이사(28회 총무)는 동문들의 구직·구인 시스템의 운영이 공수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각각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동열 회장은 "최근 경총회(회장 박청홍·14회-총무협의회 약칭)로부터 이 같은 건의안을 접수했다"며 "주요내용들은 집행부가 심도 깊게 연구해온 것으로, 앞으로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발 빠르게 검토해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동창회 2004년 제1차 이사회(2003년 회기 결산이사회). 박동열 회장이 안건 심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올해 예산 9234만원 확정

### 용마장학회 이사회... 일반회계 7762만원도

본부동창회 용마장학회 2004년 운영 예산 규모는 총 9,234만 7,408원으로, 목적사업비인 학업장학금(1,250만원)과 체육지원금(5,800만원)등에 쓰여진다. 이 같은 재원은 전년 이월금 1,703만7,748원과 장학기금 16억 2,8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금 6,512만원, 법인세 환불금 1,018만 9,660원 등으로 충당된다. (재)용마장학회는 지난 1월30

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박동열 이사장(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 주재로 2003년 결산이사회를 개최, 이를 확정했다.

이사회는 이어 모교60년사 발간 준비금 5,500만원과 모교 체육지원금 1,800만원 등 모두 7,761만7,440원 규모의 2004년 일반회계 예산안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앞서 2003년 용마장학회 운영 결산보고 심의에서 총수입규모 8,770만9,578원으로 학업장학금(950만원)과 모교 체육지원금(4,846만원)등으로 집행하고(순수 지출 규모: 7,073만 1,830원) 나머지 1,697만7,748원을 이월시킨 원안을 승인했다.

또 2003년 일반회계 결산보고 경우 총 수입 1억2,843만2,780원으로, 모교 야구지원금(4,730만 5,000원) 등으로 집행하고(순수 지출 규모: 6,531만5,340원), 잔액 6,311만7,440원을 이월시킨 원안을 통과시켰다.

## 조길우(16회) 부산시의회의장 당선

얼굴



부산광역시의회 4선 의원인 조길우 동문(16회·사진)은 최근 공식 중인 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동창회 사상 '첫 광역의회 의장'의 영예를 기록했다.

지난 1988년 7월 출범한 부산시의회에 진출한 이래 건설교통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거치면서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산업대책위원회 운영 △아시아게임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월드컵 축구 본선 조추첨 행사 유치 △부산신항 및 삼성자동차 건설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개최 등 현안문제 타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조 동문은 담백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가 두텁고, 동기회 회장과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본부(재)용마장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등 동창회 발전에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택시 사업을 하는 조이호 동문(9회)과 변호사인 조봉국 동문(22회)이 각각 형제인데, 삼형제가 동창회 발전에 애정을 쏟고 있다.

## 박일웅(13회) 나환자 재활촌에 성금 쾌척

소망

평소 소외된 시설의 수용인과 환경이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돕고 있는 한 용마가 겨울나기에 힘겨워하던 나환자촌에 '사회복귀'에의 소망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성금을 쾌척, '마음에 담아뒀던 숙제'를 풀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통영지역동창회 회장을 지냈던 박일웅 동문(13회). 진주양식업에 전념하고 있는 박 동문은 최근 경남 산청군내 나환자 재활촌인 성심원에 성금 80만원을 통영지역회 회장단과 함께 전달했다.

박 동문은 평소 성심원과 같은 불우시설의 수용인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온정을 베풀어 왔다.

"액수가 너무 적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작은 밑알 일지라도 힘 닿는 대로 온정대열에 동참하겠습니다." 박 동문의 뜻이 한결 돋보였다.

# 가마메

www.gamame.co.kr

## 12번째 가맹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깔끔한 맛 다양한 메뉴로 고객의 입맛을 이끌어가는 가마메, 성공의 시작입니다.

### Gamame

▶ 본 당 점	031) 719-2060	2001년 12월
▶ 부산대 본점	051) 515-3026	2002년 4월
▶ 시 면 점	051) 806-2752	2002년 9월
▶ 해운대 스페셜점	051) 740-4941	2003년 1월
▶ 부산대 2호점	051) 512-3625	2003년 2월
▶ 경 성 대 점	051) 627-8563	2003년 3월
▶ 남 천 점	051) 625-5303	2003년 4월
▶ 화 명 점	051) 336-8282	2003년 7월
▶ 서울 안구점점	02) 540-3717	2003년 10월
▶ 울 속 도 점	051) 208-2921	2003년 12월
▶ 해운대 2호점	OPEN 준비중	2004년 3월

【체인사업본부 051)808-9415 야)017-553-2490】

본부장 장준기 (20회)

우동류	냉면우동, 최고기우동	우동초밥SET, 가마메 우동
덮밥류	쇠고기덮밥, 버섯덮밥	돈까스덮밥, 새우덮밥
정식류	오델로나베정식, 스카이가정식	돈까스정식, 가짜나베정식

### 취임사

천신일 (15회)

재경동창회 회장 · (주)세중 회장



갑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용마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모교와 각 동기회, 각 지역동창회, 직능회 등의 조직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임 신준호 회장님과 부회장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행사를 통해서 재경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된 기반을 계속 발전시켜 반갑게 만나 즐겁게 어울리는 동창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1차 회장단 회의의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사항은 회장단 구성을 확대하여 현재 각 기별 추천 부회장 이외 각 동기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직능단체 중 산악회, 기우회, 테니스회, 기별야구회, 용마펜클럽, 골프회 회장을 추가로 당연직 부회장에 포함시키고, 회장 지명 부회장을 약간 명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당연직 부회장은 부회장 분담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사항은 재경 동창회보를 옛날 판형대로 하고 격월제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 “꿈은 크게, 실천은 치밀하게”

세 번째는 중요한 보고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학재단 문제입니다. 6억6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사고로 없어진 후 압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박종구 전 회장께서 3억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장학재단은 일단 정상화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박종구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동창회에 관하여 3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하는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모든 동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유익한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동문 개인의 발전과 동창회 조직의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 동창회의 미래는 밝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담 없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동창회의 중요한 기능은 더 많은 동문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담 없고 즐거운 동창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문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동참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고 실천은 치밀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큰 꿈을 꼭 꾸시고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재경동창회 04신년회 성황

재경 2004년 신년회. 정동서 명예회장 · 김영삼 전 대통령 · 천신일 회장 (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등 200여 동문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신준호(14회) 직전회장 감사패  
어윤대(17회) 등 4명 대상  
이규만(12회) 등 34명  
자랑스런 용마상 수상

재경동창회 2004년 신년회가 지난 1월27일 오후 6시30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3회·본부 고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교가제창(지휘 김경희 고문·9회)이 있었고, 감사패와 대상 및 자랑스런 용마상 수여, 회장 신년사와 축사(김영삼 전 대통령) 등으로 진행됐다.

천신일 회장(15회·세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동기회 회장과 산악·기우·테니스·기별야구·용마펜클럽·골프회 등 일부 직능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회장 지명 케이스 약간명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며 “참여하는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천 회장은 “장학회는 지난해 12월 박종구 전 회장께서 3억원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심기일전, 신뢰받는 운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장학회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거금을 쾌척해준 박 전 회장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 장내는 일순 박 전 회장에게 보내는 감사의 뜻이 담긴 박수로 가득찼다(사회 박호문 사무국장·15회).

천 회장은 앞서 유공동문 표창을 통해 신준호 직전회장(14

회·롯데햄우유 회장)에게 감사패를, 어윤대 동문(17회·고려대 총장) 등 4명에게 각각 대상, 이규만 동문(12회·전 회장·KML 대표이사) 등 34명에게 각각 자랑스런 용마상을 수여했다.

홍용찬 수석부회장(16회)의 건배 제의에 따른 축배에 이어 만찬이 시작됐고, 선·후배 동문들은 새해 덕담과 격려를 나눴다.

전남 장흥에서 상경한 최형식 동문(2회)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오후 9시30분경 산회했다.

<감사패> ▷신준호(14회·직전회장·롯데햄우유 회장)

<대상> ▷어윤대(17회·고려대 총장) ▷이금희(18회·MBC 사장) ▷허창수(21회·LG건설 회장) ▷임형규(26회·삼성전자 전자(주)CTO 사장).

<자랑스런 용마상> ▷이규만(12회·KML 대표이사) ▷송영재(13회·평생중등교육에 헌신) ▷서시주(13회·WBBC(바른방송) TV 대표이사) ▷김영치(14회·남성해운 대표이사) ▷조규향(14회·방송통신대 총장) ▷김충원(15회·성우종합건설 대표이사) ▷주정중(15회·삼정컨설팅 회장) ▷양휘부

### 수상동문 명단

(16회·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정종훈(16회·시흥시장) ▷홍용찬(16회·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배재욱(17회·변호사) ▷안국정(17회·SBS 전무이사) ▷김재섭(18회·외교통상부 차관) ▷최재범(18회·서울시 행정부시장) ▷고광호(19회·서울대 의대 교수) ▷이종찬(20회·서울고법 부장판사) ▷구본능(21회·회성그룹 회장) ▷이승현(21회·동남아해운 대표이사) ▷배호원(22회·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이경상(22회·신세계 대표이사 부사장) ▷

이주성(22회·국세청 차장) ▷허범도(22회·중소기업청 차장) ▷신동규(23회·수출입은행장) ▷이병구(23회·롯데카드 대표이사) ▷구본준(24회·LG필립스 LCD부회장) ▷박성표(24회·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고현진(25회·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문재인(25회·청와대 민정수석) ▷이상범(25회·서울시립대 총장) ▷이윤택(25회·국립극장 예술감독) ▷박오목(26회·KAIST 기획처장) ▷김경중(27회·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호(28회·서울지검 고양지청장) ▷최영식(30회·국립과학사연구소 법의학과장)

### 회장 연회비 대폭 인상 등 조율

2004년 새해 첫 본부 회장단 회의가 지난 1월16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열려 본부 제41차 정기총회 일정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박동열 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용마의 밤 축제 등 전

년도 하반기 주요행사 보고 △제28대 본부회장 추천 및 회장 연회비 인상폭 조율 △용마장학회 및 본부이사회 결산이사회 각각 1월30일·2월27일 개최 △본부 제41차 정기총회 3월19일 개최 등을 심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문화가스

개발 회장)·오강욱(남선곡산 대표이사)·강진평(부광산업 대표이사)·이상 10회)·오완수(11회·대한제강 회장)·손부흥(15회·손부흥정형외과의원장)·서정승(17회·서정승산부인과의원장)·남진현(19회·뉴태양호텔 회장)·박재상(22회·천일여객 대표이사)·최거훈 부회장(30회·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적은 투자로 큰 효과 거두는 회보 광고!

관정 사항의 와장실 문화를 추구합니다. 막힘 없는 조질수의 진공식 변기 시스템  
**특히 제품!**  
 새롭고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에어워터 방수 변기**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동창회장배정할 제5회 용마골프대회

경남대학교병원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 영어학원  
**Little Campus**  
 리틀캠퍼스  
 051-563-5633  
 제37회 정기회 원원 명단

메트로학원

한진중공업

# 이관선 (28회) 최강부 패전

## 제3회 용마바둑회장배 개인별 대항 바둑대회

갑신년 원단을 장식한 제3회 용마바둑회장배 바둑대회(개인별 대항전) 최강부전에서 아마 5단의 이관선(28회)동문이 왕중왕에 등극했다. 최강부전은 아마5단~1단들이 겨루는 용호상박전이다.

그리고 1급에서 6급까지 맞붙은 일반부전 경우 갑·을·병조 우승은 정은수(22회)·이상훈(11회)·박판기(26회)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일반부 우승 정은수(22회) · 이상훈(11회) · 박판기(26회)

지난 1월11일 오전 9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 특별대국실에서 김동희 회장(18회) 주재로 열린 용

마바둑회장배 바둑대회는 80여명의 용마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특히 이날 오후 3시 특별이벤트로 펼쳐진 백홍수 프로5단(14회)·한국기원 전문기사)의 지도 다면기에는 정민화(27회)·이승

준(28회)·정정남·최해영 동문(이상 31회)이 참석,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다면기 지도대국에서 4명 중 정민화 동문만 4점바둑으로 이겨 부러움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 프로5단 백홍수(14회) 지도 다면기서 정민화(27회) 이겨

백홍수 프로5단은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국수전과 왕위전 등 쟁쟁한 기전의 본선무대에서 실력을 과시한 용마이다.

부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강부 = 우승 이관선(28회)·준우승 강성훈(29회)·3위 김준영(31회)·감투상 조원석(13회)

▲일반부 ▷갑조 = 우승 정은수(22회)·준우승 안기수(31회)·3위 권해철(31회)·감투상 김기석(17회) ▷을조 = 우승 이상훈(11회)·준우승 최태영(24회)·3위 김무부(17회)·감투상 강수남(26회) ▷병조 = 우승 박판기(26회)·준우승 김용업(19회)·3위 이승진(31회)·감투상 최두호(11회).



경야회가 새로운 각오로 도약을 다짐했다(사진은 재작년 OB-YB전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용마들).

# “우리 다시 뭉쳤어요”

경야회 새 집행부 출범...회장 박문규(16회) 선임

### 모교 야구 성금 즉석모금 50만원 경남고에 전달



경야회(모교 야구선수 출신 부산 지역 동문 모임) '03정기총회 겸 송년잔치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관 한정식 전문 이대감집에서 회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천된 박문규 동문(16회)·전 경남고 야구감독·사진)을 만장일치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정기회 회장(23회)·빅토리해운 이사)이 주재한 제1부 정기총회는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고, 김성수(전 송보산업 대표) 이길상(전 경남고 야구부장·이상 6회)·박재상 동문(천일여객 사장·전 경남고 야구후원회장·22회)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또 기술자문위원(5명)과 기획위원(2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토의사항을 통해 고문단의 제의에 따라 즉석에서 경남고 야구부 동계훈련지원 성금 50만원을 모금. 새해 1월7일 이길상 고문과 박문규 회장 등이 모교를 방문해 권명미 교장에게 전달기로 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박문규(16회)  
△기술자문위원:김삼용(15회) 김홍국(18회) 이민성(22회) 김용희(28회) 윤동배(44회)  
△기획위원:이웅규(22회) 이충원(29회)  
△부회장:장성환(21회) 최영관(25회) 김두천(26회) 배기용(27회) 소유남(28회) 이무환(30회) 이승현(39회) 김정민(42회) 유성환(48회)  
△감사:김홍국(18회)  
△총무:조호기(수석·22회) 황성동(재무·24회) 박상국(행사·33회) 신영석(섭외·40회).

# 내년 홈커밍축제 준비위원회 출범

## 제29회재경회 회장 이승우



제2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월13일 새로 출범한 집행부를 내년 5월 거행되는 졸업 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 추진력 결집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04 정기총회 겸 신년회는 이승우 동문(SEED60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고, 총무에 임명된 허남건(수석)·서봉교·허현도 동문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서울과 대전(염명배·임무택) 등지에서 모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진우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울 올림픽 파크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제29회재경회 2004년 정기총회.

### 제9회 재경 회장 박남수

제9회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96-5 태양빌딩 4층 동기회 사무실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남수 동문을 선출했다.

차상구 회장의 주재로 열린 제1부 정기총회는 결산보고와 예

산안 승인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제2부 송년회는 노래-장기자랑 등으로 회포를 풀었다.

특히 '쟁쟁하고 정정한' 모습들로 모임에 나온 동문들은 눈앞에 둔 칠순담지 않게 노래솜씨를 30~40대 적 그대로 연출했다.

△회장:박남수  
△부회장:김정명 이승우  
△총무:김기관.

### 제8회 신임회장 문국

제8회동기회는 새해 들어 부산·재경별로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부산경팔회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30분 부산역 앞 광장호텔 연회실에서 동문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봉길 회장 주재로 '04정기총회를 개최, 문국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강성도·이병재 동문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어 문 회장은 조봉석 동문을 총무로, 최윤식 동문을 재무로 각각 임명했다.

### 부회장·이사 새로 선임 재경경팔회, 회칙 일부 개정

재경경팔회는 지난 1월27일 오후 1시 서울 청진동 흥진옥에서 동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규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임시총회는 부회장과 이사를 선임했고, 개칭회칙안을 통과시켰다.

부회장에는 김태규 김호석 이영창 문창화 박성재 정형수 김동훈 동문(총무 겸임)을, 이사에는 신현주 이양희 이정윤 염병영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 제10회 회장 김종원 재경경열회 회장 이근태



제10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중앙동 신북경반점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중만회장 주재로 '03정기총회를 열고 김종원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에, 김희준·여의도 동문을 부회장에, 박종문 서수현 동문을 감사에, 서정철 동문을 총무에 각각 선임했다.

한편 재경경열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스포타임 5층 연회실에서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열고 이근태 동문을 회장에, 정인호 동문을 총무에 각각 선임했다.

### 제31회 신임회장 남철우 개정회칙안 원안대로 통과



제31회동기회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 부산일보사 10층 고메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4정기총회를 개최, 남철우 동문(법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손영태 회장이 주재한 총회(사회 이병태 총무)는 임원 개선에서 회장 선출에 이어 강신희 동문을 감사에, 안중수(섭외)·김성규 동문(홈관리)을 총무로 선임했다.

이어 개정회칙안('이사회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등)를 통과시켰다

### 제34회 신임회장 최웅철 본부이사 신·구회장 추천

제34회동기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진구 부전동 역전 식당에서 '04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회장에 최웅철 동문(금화기업 대표·사진)을 선출했다.



양철용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임원을 개선했다. 한편 총회는 최웅철 신임회장과 양철용 직전회장을 본부이사로 추천했고 옥재명 동문을 총무로 선임했다.

### 제39회 회장 김형보 선임

제39회동기회는 지난 2월13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외갓집에서 '04정기총회를 개최, 김형보 동문(동의대 교수·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안영준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7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신임 김형보 회장은 동기회 살림을 꾸려나갈 총무에 안승진 동문을 임명했다.

### 제41회 신임회장 백창봉

제41회동기회는 '03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정덕숯밭갈비에서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류지섭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임원 개선을 통해 백창봉 동문(강촌해미리타운 전무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김득수 추교용 동문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총회는 김한수·성찬기 동문에 대한 총무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 부인 동반 80여명 열광 파노라마

### 제14회 세모한마당 잔치

제14회동기회 송년잔치가 지난해 12월23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18층 뷔페타워에서 열렸다.

김영대 회장이 주재한 잔치는 부인 동반 80여명이 참석, 뜨거운 열기 속에 정담과 친교의 꽃을 활짝 피웠다(사회 박청홍 총무).

제2부 여흥은 부인들의 열창대회와 댄스파티, 부부 듀엣 경연, 남녀합창, 장기자랑 등으로 연출됐다(사진).

### 신년회 노래대상 임미숙씨 제16회, 손자동원 특상받기도

제16회동기회는 지난 1월2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관광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정영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친구들 자주 자주 만나면서 살자"고 말했다.

동문 32명과 부인 16명 등 모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

는 강종국 총무의 사회로 진행,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노래자랑에서는 임미숙씨(정우광 부인)가 대상을 차지했고 모든 부인들이 값진 선물을 받았다.

특히 대구에서는 채경일 부부가 참석했고, 이영일 동문은 손자를 데리고 나와 자랑하고 손목시계를 행운상으로 탔다.



지난 1월29일 부산관광호텔 연회실에서 열린 제16회동기회 신년회.

### 제15회, 친목회별 새해 단합회

제15회동기회 각 친목회는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일제히 신년회를 겸한 1월 정례회를 열고 약진과 화합을 다짐했다.

사하회(회장 권승부)는 27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광복동 중화요리집 왕가(15명 참석)에서, 의약회(회장 손부홍)는 15일 오후 7시 부산역 앞 화교 거리에 있는 원향제(8명 참석)에서, 이화회(회장 강부남)는 13일 오후 7시 동래 온천장 입구 한정식집 송원(9명 참석)에서 각각 단합회를 열었다.

#### 동기회 두 총무 참석해 축하

가람회(회장 임영길)는 12일 오후 7시 동래 온천장 죽마고우(김승일 동문 운영·9명 참석)에서, 화진회(회장 임병철)는 13일 오후 7시 서면 강태공과 강성돔 횃집(11명 참석·동기회 최병우 조일랑 총무 및 심재일 동문

## 경팔회 '졸업 50돌 기념문집' 발간키로

제8회동기회는 '졸업50주년 기념문집'을 발간키로 결정했다.

재경경팔회는 지난 1월27일 총회를 개최,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이제 칠순에 이른 경팔회의 학창6년(1948~1954)은 광복과 건국, 여순반란사건과 6·25한국전쟁 등 민족의 영욕과 비극을 몸으로 겪어온 세월이었고, 이 같은 갖은 고초와 수난은 바로 우리 민족사를 웅변하는 것.

경팔회의 '졸업50주년 기념문

집'은 자긍심 가득찬 학창시절의 청운의 꿈과 잊지 못할 추억들, 그리운 얼굴들과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시·시조·단상·수상, '나의 아버지'·'나의 남편'을 주제로 한 가족 원고 등 다양한 내용들로 엮을 예정이다. 원고 마감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며, 원고는 재경 경우 서울 광진구 구의3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12동 1802호 정형수(우)143-761)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 경팔회 클럽별 '봄기ழ기'

잔디회 3월4일 새해 첫티업

강추위로 1~2월 폭 선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입춘과 우수

를 보내고 경칩을 하루 앞둔 3월4일 안성 cc에서 올해 첫 티업(5팀)에 들어가 기량을 겨뤘다.

팔선회 2월 바둑 우승강상태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3월6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일기원(옛 일풍기원)에서 새해 세 번째 수담을 나눴다.

지난 2월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정례대국에선 꼴찌로 나타났던 강상태 동문이 우승을, 꼴찌보다 한걸음 앞서 도착한 이종숙 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 경열회 2월 수업 활기

분당회, 여의도회 흡수 통합키로

강추위가 한풀 꺾이자 경열회 2월 수업'이 활기찼다.

강남회(회장 김해룡·신임)는 24일 오후 12시 30분 기왕집순두부에서, 반산회(회장 박철민·신임)는 10일 정오 안산 중앙역 다릿목 추어탕집에서, 강북회는(회장 강재환·신임)는 3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반주 걸들인 점심을 먹으며 새해 포부를 쏟아냈다.

사니조아(회장 이계창·신임)는 22일 맹장~영장산과 14일 아차산에 올라 눈구경까지 즐겼고, 동수회(회장 김상태·신임)는 21일 오후 1시 김희장 사무실에 모여 수담을 나눴다.

분당회(회장 서진홍·신임)는 여의도회의 흡수 통합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해 정기모임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편 정우회는 최형백 동문이 회장직을 새로 맡았고, 골프모임인 경록회는 이정배 회장을 유임시켰다.

### 고래고기·대게·폭탄주 '찰떡궁합' 제27회 부산·서울 흥겨운 신년회

제27회동기회의 지역회별 신년회가 부산·서울에서 열려 도약을 다짐했다.

부산 경우 해운대지회(해운대·수영·남구 등)는 1월15일 오후 7시 해운대 신시가지 소연각에서 강봉호 회장 주재로 상견례를(16명 참석), 귀래정 빌딩에서 뒤편이를 벌였다.

조용수 동기회 회장·옥명훈·한장호 동문의 특찬금 각 10만원과 참석자의 회비 각 5만원 등은 잔고16만원의 축하 잔치로 이끌었다.

서울 경우 영등포지회는 같은 달 14일 오후 6시 서울 지하철 당산역 부근의 구룡포막걸집에서 11명이 모여 신년잔치를 벌였다.

박영빈 동기회 회장과 김훈탁 총무가 참석해 즐거움이 두 배가 된 이날 모임은 부산에서 고래고기를, 포항에서는 대게와 골뱅이 등을 각각 태배로 실어 날라 잔치상이 해물성찬이었다.

#### 뉴질랜드지역

박봉수(33회)=뉴질랜드 부동산 공인 중개사, RAY WHITE 근무 (HENDERSON OFFICE), MP 0272-012345(뉴질랜드 오클랜드/64-9), 사무실 866-6606

#### 통영지역

황성남(3회)=055-642-9119  
표광민(29회)=표광민내과의원장, 055-646-9095  
박중배(30회)=삼화철강 대표, 011-849-6700  
김우신(35회)=김우신성형외과 의원장, 055-646-9285  
김기산(33회)=통영시 육지중학교 교사, 017-558-1817

김광철(27회)=충무고등학교 교사, 016-9877-4425

#### 제 5 회

姜太遠=(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08-1 대우푸르지오 102동 302호, 051-761-3450  
金泳昊=(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62-8 청아리치타운 802호, 051-582-1038  
金泰洙=(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638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19동 601호, 051-521-2081  
朴炳俊=(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86-6 주공2차아파트 216동 208호, 051-262-9347  
尙基中=충무치과의원 원장, (자



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1동 176-8 LG메트로시티 209동 1403호, 051-612-5828

#### 제 8 회

李浩元=(자택이사)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교리2단지 주공아파트 102동101호, 051-724-5156  
姜曺洙=(자택이사)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38-27호, 02-543-

1568  
申昊均=(자택이사)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800 대우아파트 103동 303호, 02-2281-3730  
具武鎰=(Koo Muok)9450 Hoilder st, #17 Cypress CA 90630 U.S.A.  
金振煥=(Kim Jinhwan)226 9th, Wilmette, IL60091 3316 U.S.A.  
趙碩濟=010-3100-7565  
朴喜玉=1월19일 모친 별세  
孫大斤=1월10일 런던웨딩프라자에서 아들 용재군 결혼  
洪起城=팩스 1대 동기회 비품 기증

#### 제 9 회

車相九=(자택이사)경기도 고양

시 일산구 장항2동 아이스페이스 1312호, 02-749-5408  
白宰奉=(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29 문촌마을 삼익아파트 403동 904호, 031-915-7855  
李祺周=(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69 LG자이아파트 901동 1503호, 031-262-3911  
崔海洙=지난해 12월20일 목화에 식당에서 장녀 결혼  
辛容翼=지난해 12월21일 서울 공항터미널 코엑스에서 장남 정호군 결혼  
朴在允=1월10일 대전 대덕교회에서 장남 문흠군 결혼



건강은 곧 행복이라고 한다. 요즘같이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하게, 즐겁게 살자'는 희망들이 넘치고 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 시간이 부족한 세상살이일지라도 틈을 내어 독서나 음악감상을 즐기고, 등산·바둑·골프·달리기 등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등 건강=행복 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Health)과 행복(Happy)을 아우러주는 'Healppy'란을 마련했다.

우승 이상명(A)·최영수(B)

쌍석회 신년바둑대회  
신대수 회장 특별공로상

쌍석회(제11회 바둑서클) 갑신년 첫 바둑대회가 지난 1월26일 오후 1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려 이상명(A조-아마단급 이상자)·최영수 동문(B조)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상훈(A조)·최득호 동문(B조)은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신대수 서클 회장이 주재한 새해맞이 대회에는 기사 20명과 응원 동문 18명 등 모두 38명이 참석, 열기에 문했다.

조별 리그전으로 열린 이날 대회를 위해 이 명 동기획장은 시상품을 후원했고, 신대수 쌍석회장은 회식비와 기념품비를 협찬했다.

한편 대회장 구내식당에서 열린 단합회에서 이 명 동기획장은 신대수 쌍석회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 평소 회의 발전에 헌신한 노고를 치하했다. 신 회장은 앞으로 분기별로 대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 해운대 동백섬 6취 돌아 마라톤회 새해 첫 여주

'잘 뛰자!' 27마라톤회(제27 회동기회)의 새해 첫 스퍼트가 지난 1월2일 오후 7시30분 부산 해운대 동백섬 일주 코스에서 실시됐다.

이형복(한경애) 조봉관(김종순) 태기섭 동문(김창희) 커플과 김태우 박상훈 백민호 장기남 조성원 정혜임 동문 등 12

### 일오산우회 금정산 시산제 '시꽃박석'

제214차 산행... 창립 이래 최다 35명 참가

일오산우회(제15회동기회) 새해맞이 시산제가 지난 1월18일 금정산에서 제214차 산행대회로 열렸다.

김항영 회장이 총지휘를 하고 최원수 전 총무가 산행대장을 맡은 이날 산 타기는 산우회 창립 이후 최다인원인 35명(부인 8명 포함)이 참여했다.

이날 10시30분 범어사 계곡을 타기 시작한 일행은 북문(점심식사)~미륵사 옆~화명동 방향~

산성마을~온천장까지 '무낙오' 기록을 세웠다.

허심청 온천욕 후 죽마고우(김승일 동문 운영)에서 열린 신년 단합회에서 김항영 회장은 지난 2년간 집행부를 맡아 헌신한 김중광 전 회장과 최원수 전 총무에게 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기념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한해수 동문을 부산 근교 좋은 산들을 적극 발굴하는 '연구소장'으로 임명해 폭소 한마당을 만들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재경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의 2003년 산행기록이 나왔다. 지난해

### 연인원 511명 총 47회 산사랑

재경경팔산우회 회원  
2003년 산행기록분석

12월 27일 관악산을 끝으로 한해의 산행을 마무리한 재경경팔산우회의 총산행은 47회에 연인원 511명이 참가(1회 평균 10명)했다.

목적산별로는 도봉산과 관악산이 각 15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락산 13회, 소요산 2회, 태백산 1회 순이다.

1회 최다 참가인원은 2월15일 관악산 17명, 최소는 10월11일 도봉산 4명이었다.

개인별 참여는 평균 23회(회원 22명의 연 참여 회수 519회를 참여인원으로 나눔). 평균치 23회를 초과한 회원은 김영철 회장을 비롯, 김태용 노재복 문규환 문창화 박성재 이규환 이영희 이희순 임영택 정상현 정형수 최재혁 동문이었다.

의안을 가결했다.

회를 이끌어갈 임원으로는 왕충무 조봉관·총무이사 이형복·인터넷 및 운영이사 백민호·법무이사 김태우·의무이사 배병호 동문과 수석코치 한경애·한국무용 코치 김창희 등을 각각 선임했다.

명은 차가운 날씨에도 동백섬을 여섯 바퀴나 뛰는 괴력(?)을 과시했다.

뛰면서 서로 새해인사를 나누는 '준마'들은 상황이 끝나자마자 할매복국집으로 이동, 신년회를 열고 △구호 선정 △사업계획안 △임원 선임 등 주요

### 바위병풍 위용에 가슴도 다리도 떨려

철순의 경팔산우들 월출산 등정기 이 성 호

지난 12년간 한라산·지리산·설악산 등 우리나라 크고 작은 산을 500여 회나 오른 철순의 경팔회 산우들(심재홍 강성도 배기현 조봉석 엄덕량 우동천 이성호)은 지난해 12월 9~10일 바위산으로 병풍을 이룬 전남 영암 근교의 월출산에 올랐다.

〈첫날〉담양의 가사문학관(관동별곡 등 전시)과 소재원(우리나라 대표적 고가·정원) 등을 둘러보고 월출음식문화원에서 밥을 지냈다.

〈뒷날〉오전 9시쯤 왕인박사와 도선국사, 남도화가 등 수많은 인걸을 배출한 월출산(812.7m) 도전에 나섰다.

개신리매표소를 거쳐 천황사지 버랑길 돌을 잡고 올라갔다. 솟아오른 영봉들, 앞길을 가로막는 절벽, 좌우의 3형제봉, 동

백꽃길 등... 창계단 흥계단을 올라 시루봉과 매봉을 잇는 높이 120m·길이 50m의 구름다리에 섰다. 현기증을 느끼며 건너서 바위병풍에 위어울린 수직형 사다리대에 연결된 매봉을 넘었다.

잠시 거친 숨을 고르다가 곧바로 사자봉 절벽 아래 S자로 접어들었다. 기진맥진... 사자봉·명필봉 등 비경들이 흔들바위(動石) 낙락 끝에 떨어질 듯 걸려 있었다. 계단 타고 다시 가니 통천문이고 구멍을 넘어서니 천황봉, 회일과 감동이 교차했다.

정상인 천황봉은 평평한 암반으로 전체를 지내던 소사터라. 산행대장 엄덕량이 술 한 잔에 절을 올리자 일행이 아호 3창



월출산 정상인 천황봉에 오른 철순의 경팔회 산우들이 호연지기를 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을 외쳤다. 사방이 우뚝 솟은 절벽봉우리라,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다. 기묘모양한 기암괴석이 창검을 세운 듯하고 바위 성채의 장대한 기상에 신비한 위압감을 느꼈다.

북쪽은 영암읍에 울망줄만한 황토마을이, 서쪽은 영산강과 전라 평야에 목포가 지척이다. 동쪽엔 암봉들이 크고 높은 기둥 모양의 괴석으로 장관을 이루며 서남해를 굽어본다.

서남능선은 천황봉과 구정봉이 양팔을

어 오르니 이른바 구정봉! 아찔한 봉우리 위에 20여명이 앉을 만한 암반이다. 크고 작은 웅덩이 10여 곳이 있는데 물이 고여 있다. 곧바로 오르락 내리락 100m 가니, 거대한 암벽에 가득 조각된 마애여래좌상이 인자한 모습으로 서해를 바라보고 있다.

뒤돌아오니 기암성채들이 기라성 같다. 남릉길엔 낭만적인 능선길, 역사와 조릿대로 뒤덮인 미황재 역새밭길이 그르이다.

월출산! 호남의 소금강산이 틀림없다. 사자봉은 북한산 인수봉을 닮았고, 늘어선 기암봉들은 금강산을 옮겨놓았으며, 구정봉은 속리산 문장대를 닮았다. 불티재 암릉들은 설악산 용이릉을 연상할 정도다.

아쉬움을 남겨 놓고 일행들이 기다리는 바람재로 다시 와서 월남사지 계곡을 내려온다. 이늑한 숲 속 길에 걸쭉은 동백군락들이 탐스러웠다.

### '사랑의 기술 쉬운 이야기'

황수길(17세) 편지

세무서장을 지내고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수길 동문(사진)은 최근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을 독자에게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써 책이름을 <사랑의 기술 쉬운 이야기>라고 붙여 펴냈다(도서출판 전망).



특히 황 동문은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접목되게끔 자신의 사진 작품들을 책갈피 사이사이에 곁들임으로써 새로운 멋과 맛을 조화시켰다.

황 동문이 펴낸 이 책에 대해 언론계의 서평들은 '원작은 난해한 사회심리학 전문서적이어서 쉽게

풀어 쓰면서, 편자의 작품 사진을 책 갈피에 실어 사랑에 눈이 번쩍 뜨이도록 색다른 구상을 하였다'(부산일보). "...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의를 생략하고 최근의 성 심리학 자료를 곁들여 신선한 맛을 더했다"(국제신문)라는 평가를 내렸고 '수준이상의 수확'이라고 했다.

편저자인 황 동문은 "주변의 모든 현상과 모든 사랑을 '사랑의 대상 및 사랑하는 관계'로 보고, 사랑이 있는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길이라 터득하여 온 생명을 바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세무사인 황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이래 부산 해운대세무서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동문이 펴낸 새 책

### '나는 호박꽃이고 싶다'

서상국(31세) 지음

부산 화명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서상국 동문(사진)은 최근 산문집 <나는 호박꽃이고 싶다>를 발간했다(도서출판 푸른시대).

모두 5장으로 갈라 '박씨 하나 아픈 날' 등 45편의 글로 꾸며진 <나는 호박꽃이고 싶다>는 서 동문이 20년간의 교단생활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갖가지 풍경들(학생들의 학교 안팎의 생활·학부모 이미지·교육환경·사회현상 등)을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간결한 문체에서 풍기는 소박하고 훈훈한 체온감이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이 보여주는 현상들을 '배려하는 시선'

으로 끌어들이며 여과시키고 끝내는 동화(同化)하게 한다.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책을 덮을 수 없도록 한다.

이 책은 서 동문이 본문 중에서 '호박꽃도 꽃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놀려대는 꽃도 아니라는 그런 호박꽃이 되어 어느 아침 이슬 맞고 뚝! 한 몸통째 떨어지는 노란 호박꽃이고 싶다'라는 슬회에서 엿볼 수 있다.

부산대 사학과를 나온 서 동문은 강단을 지키면서 '봄-매거진'의 고정칼럼니스트를 지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베스트 칼럼으로 뽑힌 '서상국 글 모음'이란 칼럼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인터넷 소설 <5월의 강>과 <가을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고 산문집 <산에 갔다 첩 하나 달고 왔네> 등을 펴낸 바 있다.



# 남녀 100여명 댄스파티

### 미국 뉴욕회 송년한마당... 장학금 전달식 곁들여

미국 뉴욕지역동창회 '03용마의 밤' 축제가 지난해 12월 뉴저지의 대원에서 어수일 고문(5회) 등 동문·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김동환 회장(22회)이 주재한 이날 축제는 제1부 기념식에서 원로 및 영진 동문과 집행부 임원 등 소개에 이어 대학진학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회장 인사·고문 격려사·축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2부 여흥은 입심 좋고 재치 넘치는 최환승 총무(37회)의 사회로 열려 폭소 연발이었고 열창 속에 펼쳐진 장기 자랑에서 제14회 동문·가족들이

주축이 된 댄스 파티 등이 행사를 열기와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뉴욕회는 김동환 회장을 비롯, 김도명 수석부회장(24회)과 김정필(25회) 김치갑(26회) 조형선(27회) 김영무(28회) 김태영 부회장(31회), 최환승 총무(37회), 박철원 재무(44회) 등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다.

# 경고 제58회·경중 제61회 졸업식 거행 최홍석군 등 4명 용마장학금

모교 경남중·고교 2003학년도 졸업식이 최근 각각 학교별로 열렸다.

경남고(교장 권명미)는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제58회 졸업식을 거행, 432명의 용마를 새로 배출했다(졸업생 총 28,594명).

이날 졸업생들은 박동열 본부 회장에 동창회 입회비(250만원)를 전달했다.

권명미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영원한 경고인의 대열에 합류한 졸업생 여러분은 높게 힘차게 도전해 책임성 강하고 저력을 과시하는 인물들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권 교장은 앞서 졸업장에 이어 학업최우수상(인문반 허민·자연반 최홍석)을 비롯해 202명에게 각종 교내상을, 12명에게 학교 운영위원장상(최종빈) 등 대외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어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최홍석·허민·장하군·김형준군 등 4명에게 용마장학금(각 50만원)과 장학증서를, 허 민군에게 동창회장상장과 부상으로 MP3를, 장하군 김현태군 등 2명에게 경문회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또 연당장학회(고 이종열 동문(5회)의 유지로 발족)에서는 김주용군에게 연당장학금을, 최성호 동문(17회·최성호퍼비뉴기과의원장·전 부산시의사회장)은 남철현 문정행 이두성군에게 각각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62년의 역사를 쌓은 모교는 대통령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국가적 인재들을 무수히 배출했다"며 "졸업생 여러분은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와 지식을 축적해 경고인의 자긍심을 드높여 달라"고 말했다.

## 새 집행부 출범 역량결집 한마음 토론토 회장 백기덕(18회)

이날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이날 부회장은 정월남(수석·21회)·이재권 동문(29회)을, 총무에는 이창건 동문(28회)을 각각 뽑았다.

캐나다의 토론토지역동창회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시내 서울관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백기덕 동문(18회)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 "고향 그리워..." 눈시울 적신 토론토 설잔치

## 용마가족 38명 한자리에 떡 등 토속 음식 풍성 '살아가는 이야기' 무성

용마가족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지역동창회가 강추위도 녹이는 훈훈한 마음들의 설잔치를 벌여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했다.

지난 1월24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토론토 시내 서울관 백기덕 회장(18회)의 주재로 열린 설잔치를 겸한 신년회는 동문 13명(8회 원영신·14회 이현정·이익홍·15회 계대훈·17회 여문석·18회 백기덕·이정관·21회 김호영 정월남·26회 왕정모·28회 이창건·29회 이재권·43회 오승석)과 부인 8명 등 모두 21명이 참석했다(사회 이창건 총무·28회).

미국에서의 설 잔치상은 고향 냄새가 물씬거리는 몇 가지 떡들과 단술(식혜), 너댓가지의 전류, 산나물과 과일류, 생선찜과 쇠갈비찜 등으로

차려져 향수에 젖게 했고, 대부분 부인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정답시간에는 최근 이주해 온 이창건(28회)·오승석(43회) 두 동문의 용기 넘친 취업담을 비롯해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로 토론토에 잠시 들른 이정관 동문(18회)의 중국 이야기, 이익홍 동문(14회)의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딸 교육담 등이 분위기를 즐겁게 했다.

이어 백 회장 부인부터 시작해 여러 부인들이 생활 고생담, 자녀 교육문제, 애먹이는(?) 남편 홍보기, 부인들끼리 협동심 발휘했던 호뭇한 이야기들 등을 토해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자리에 모인 다정한 마음들... 앞줄 왼쪽부터 이정관(18회)·원영신(8회)·이현정·이익홍 동문(이상 14회), 뒷줄 왼쪽부터 백기덕(18회)·여문석(17회)·왕정모(26회)·이창건(28회)·오승석(43회)·이재권(29회)·정월남(21회)·계대훈(15회)·김호영(21회).



지난 2월20일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경남고 제58회 졸업식. 432명의 졸업생들은 용마인으로 첫발을 내디디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 구만근군 동창회장상받아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은 앞서 19일 오전 10시30분 학교 체육관에서 제61회 졸업식을 거행, 졸업생 327명을 새로 배출했다(졸업생 총 31,258명).

졸업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학사보고 졸업장 및 각종 상장 수여·학교장 회고사·축사(박정희 학교운영위원장·박동열 본부동창회장·박찬중 동문)·송사·답사·졸업의 노래 및 교가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곤 교장(대한적십자사 주관 국제회의 참석차 출장)은 최

성수 교감이 대독한 회고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들은 성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망을 펼치고 건강을 지키며 굳건히 노력하여 역사를 쌓아가는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앞서 졸업장에 이어 종합최우수상(구만근군)을 비롯해 259명에게 각종 교내상을, 12명에게 학교운영위원장상(유경호)과 학부모회장상(한성민) 등 대외상을 각각 수여했다.

박동열 회장은 구만근군에게 동창회장상장과 부상으로 MP3를 수여했다.

## 어디서 무엇을

**제 10 회**  
襄基大=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광안맨션 329호, 051-611-3788  
徐徹河=허준정형외과의원장.

051-524-3399, 부산시 남구 대연 1동 873-27 백화맨션 207호, 051-627-1508  
金鍾源=1월10일 미국 LA에서 아들 결혼  
金昌權=1월29일 지방으로 별세  
朴七致=(자택이사)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 삼익아파트 102동 102호, 02-706-7996  
朴光春=(자택이사)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813 호계e편한세상 115동 502호, 전화번호동일  
朴嘉洙=(자택이사)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521 LG자이아파트

108동 402호, 02-715-1360  
安照萬=2월29일 경기도 이천성당에서 차남 석호군 결혼

**제 11 회**  
南灝鉉=지난해 12월13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장녀 회주양 결혼, 051-242-6150  
李在珍=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19-11 삼해대림아파트 102동 1606호, 051-523-3451, 010-3139-3451  
安敬文=경남 밀양시 삼문동 삼성 밀성아파트 2동219호, 055-354-5405, 019-364-5405  
河鍾先=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7257-8 삼정빌라 B동 302호, 031-758-0353, 016-880-2853

金仁鎬=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76-5, 02-379-8268, 011-9005-1208  
孔相基=금호타이어(주)곡성공장 부속병원장,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145, 061-360-3510, 019-9159-8752  
白然均=(주)삼정사 대표이사, 전남 여수시 오림동 411-7, 061-683-5433, 011-623-5966, (자택)061-652-5966  
崔泰源=동남합업 대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36-3, 055-673-6070, 011-303-9576  
柳興洙=한나라당 국회의원, 1월

19일 동기회 사무실 방문, 환담 및 만찬  
金在煥=(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1동 176-30 LG메트로시티 124동 404호, 051-612-8027, 019-515-8027  
李相明=지난해 11월23일 대구 알리앙스예식장에서 차남 승희군 결혼, 054-742-6163, 018-512-6163  
金東式=지난해 11월11일 별세, 051-255-2778  
文南九=(자택이사)부산시 북구 만덕동 944-6 3주공아파트 108동 106호, 051-362-2260, 011-557-9663  
李承泰=(자택이사)부산시 부산진구 가야1동 361-106 용궁빌라 A동 401호, 051-893-8009

**제 12 회**  
李元雨=지난해 11월23일 전주 교원공제회관에서 딸 결혼  
文正秀=지역경제연구소 개소, 051-203-0735, 팩스 051-203-0736  
金鍾一=극동선박(주) 기관장 취임  
金聖贊=(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232동 1602호, 011-662-6040  
禹清夏=(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104동 1203호  
權延相=지난해 12월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장남 결혼  
鄭泰化=부인 별세  
宋世文=지난해 12월27일 새마당 예식장에서 딸 결혼

이 자리는 보고싶은 용마가족들이  
근황을 전하며 만나는 우정의 광장입니다.



# 어디서 무엇을



국내의 거주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기회나 본부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십시오.

(6면에 이어)

### 제 14 외

吳慶熙=(주)국제염직 대표이사. 053-351-9555. 지난해 11월15일 대구에서 장남 결혼. (자택)053-792-6676

金在道=지난해 11월16일 벡스코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731-2458. 017-563-1574

李明宰=부산대학교 상대 교수. 051-510-2541.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장남 결혼. (자택)622-3292

李鍾敏=공항관세사 대표. 051-469-3613. 973-1888. 지난해 11월 22일 목화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자택)051-554-0074

金榮雨=한생산업(주) 대표이사 회장. 02-702-3016~9. 지난해 11월22일 부산상고 교정에서 부친(故김지태) 흉상 제막식. 051-805-1611

柳總一=부산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겸 부산의료원 원장. 051-607-2000. 지난해 12월2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차녀 결혼. (자택)051-624-1742

金治煥=(주)진영정밀 대표. 056-774-2839. 1월10일 서울 농업무역센터에서 장남 결혼. (자택)056-244-8334

朴秀夫=대추나무 집 대표. 055-356-7488. 1월11일 그랜드호텔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055-354-3509

金容浩=(주)통영예선 전무이사. 02-2168-3288. 2월15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삼남 결혼

조돈만=2월15일 울산 가족문화센터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052-267-7600. 011-410-7607

### 제 15 외

慎洪揆=지난해 12월26일 서면 롯데호텔 라세느에서 13명의 동기생 초대하여 오찬

이요셉=신우회 회장. 1월10일 중앙교회에서 제1회 모임 주재

金完植=1월24일 모친 별세

韓桃根=(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68 봉우아파트 209동 503호. 055-363-5125

金昇一=010-3098-0202

李鍾明=해운대 성심병원 외과 과장겸 의무원장.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808-3. 051-743-5555. 011-845-7950

權勝夫=서면 동의한의원 개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7-14. 051-818-4343. 051-817-3388. 017-553-7313

朴俊哲=부산 맹학교 교장

李喆雄=김해 초원의 집 대표. 동기회 사무실 방문 협찬금 전달

김용남=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용지상가 빌딩 401호. 055-342-4547. 018-560-6662

河永守=(자택이사)경남 김해시 동상동 716-1 동광아파트 205호. 055-335-2662

朴昭男=(자택이사)부산시 북구 만덕2동 356. 051-334-8161

李鍾明=(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새한센스빌아파트 103동 604호

鄭東圃=(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삼해대림아파트 106동 1903호. 011-1700-6119

曹武雄=지난해 12월7일 해암빌딩 7층 웨딩홀에서 차남 민섭 군 결혼(주례 조영일 동문)

鄭玉鍾=지난해 12월13일 해운대 벅스코웨딩홀 컨벤션홀 2층에서 아들 세진군 결혼(주례 이선공 동문)

孫富弘=지난해 12월20일 코모도호텔 1층 총무홀에서 차남 현진군 결혼

朴準源=지난해 12월19일 부친 별세

金洋一=(자택이사)충남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197-2 천문사 법지스님. 041-868-2830

趙南郁=지난해 10월26일 부친 별세

丁聰=동기회 사무실 방문 동기회 발전기금 전달

崔旭=지난해 11월1일 해운대 파라다이스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들 정혁군 결혼

李先功=지난해 11월8일 사학연금회관 4층에서 장남 영환군 결혼

金準君=지난해 11월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차녀 우향양 결혼

### 제 16 외

余聖國=지난해 12월28일 딸 은경양 결혼

朴永秀=1월4일 차남 상환군 결혼. 명성관에서 결혼터

李相珍=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정년퇴임. 정년기념문집 이상향 발간. 동기회 사무실에 10권 기증

姜鍾國=1월10일 장녀 목희양 결혼. 화남식당에서 결혼터

朴昭雄=1월11일 창원에서 딸 민지양 결혼

邊龍現=금정동동주 24통 동기회에 기증

宋圭政=1월26일 동기회사무실 신년하례 후 18명에게 명성관에서 만찬

李吉秀=2월4일 식도암으로 별세

李東佰=2월20일 아들 한 군 결혼 시키고 결혼터

### 제 18 외

金武源=부산시 서구 암남동 현대아파트 102동 1101호. 051-256-0578

金思權=동래경찰서장. 051-552-0112

金喆用=연제구청 총무국장. 051-665-4200

梁龍吉=지난해 12월20일 장녀 효실양 결혼. 051-291-4481

河斗錫=지난해 12월21일 장녀 지강양 결혼. 051-205-5822

崔成浩=지난해 12월21일 모친 별세. 051-861-6706

裴世元=지난해 12월23일 부친 별세. 051-532-5723

趙昌欽=지난해 12월26일 부친 별세. 054-277-6250

閔成根=1월5일 별세. 055-753-5631

金永秀=1월29일 부친 별세. 051-754-2535

### 제 30 외

尹寅台=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

林奎榮=1월10일 부친 별세. 011-596-5075

劉正東=1월14일 대평초등학교 강당에서 자서전 '여보 나랑 오래오래 살자' 출판기념회 개최. 홈페이지 www.youandi.or.kr

金憲武=대구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053-850-6121

金鍾喆=김종철 세무회계사사무소 소장. 051-851-1601

南斗鎭=금강예식장 대표. 051-554-7500

朴貴煥=상진건설 감리본부. 051-247-0208

朴榮復=신아토건(주) 대표이사. 051-867-5677

李大運=호수약국 대표. 051-621-5531

崔康登=정공산업(주) 대표이사. 051-261-2911

### 제 20 외

許圭判=삼성산업 회장. 2월8일 대구에서 딸 은별양 결혼

秋俊錫=1월1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취임. 051-999-3001

### 제 21 외

尹慶俊=지난해 11월3일 부인 별세. 내과의원 원장(마산)055-294-7307

沈光燮=지난해 11월18일 모친 별세. 세강의과의원 원장(마산). 011-9521-2434

姜錫=지난해 11월22일 장녀 결혼. 사조CS 이사. 011-9513-9510

金昌珉=지난해 11월23일 모친 별세. 경남산업(주) 대표이사. 051-469-0456

李在皓=변호사. 도시&해양법연구소 개설. 011-595-6242

朴純洋=016-595-6058

李晶揆=경성대학교 약학과 교수. 016-547-5926

李鍾法=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11-870-6679

李在澤=019-573-2717

朴星烈=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019-286-0754

崔洛桓=영재교육연구실 대표. 016-799-8547

金亨東=동아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019-662-5241

姜三泰=서부산세무서 세원관리

2과장. 011-589-4513

金起賢=(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202동 1403호. 동아의료원 내과 교수. 017-553-6022

姜昌洙=학교법인 상주학원(남해) 제3대 이사장 취임. 대경 F&B(주) 대표이사. 018-563-7211

趙響來=2월15일 장녀 결혼. 삼보크레인 이사. 011-312-4441

### 제 25 외

禹相朝=지난해 12월24일 부친 별세

金相守=김상수세무회계사사무소 개업.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7-17 대양빌딩 402호. 051-611-9957

金鈴=삼도종합건축사 대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89-9 대신빌딩 402호. 051-867-8994

### 제 26 외

鄭巨敦=(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20동 702호. 051-521-5642

### 제 27 외

鄭祥坤=국세청 본청 총무과장. (자택)02-6242-6703. 011-477-6703

鄭正吉=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사무소장. 011-9905-1708

朴得松=YTN 미디어국장. 02-398-8000(대표). 011-214-1323

李明雨=명천기업. 055-293-9402. 016-636-7754

鄭南根=3월 중 대한적십자사 충남 서산의료원. 016-582-1954

金黃烈=법무사 개업. 011-590-3434

姜鳳鎬=(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12동 404호. 051-912-2882. 011-557-2746

金元大=(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15-2 경동메리빌 102동 301호. 051-731-2766. 011-842-3562

文斗濼=(자택이사)부산시 남구

### 제 33 외

김정옥=부산시 남구 대연3동 21 센츄리 2202호 051-610-0606

김법영=김&정 신경외과의원. 부산시 진구 양정2동. 336-7. 051-862-5454

이진우=삼진한의원.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해천빌딩 6층. 051-742-6688

이광호=이광호성형외과.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051-208-2888

이순환=(주)한국메탈.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90. 054-746-0750

이호인=한창스파피아 점질방. 부산시 연산동 한창정보센터 3층. 051-863-8900.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206동 2002호. 051-612-2637. 011-558-2202

朴昌坤=(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LG아파트 108동 1801호. 051-245-5785. 011-9306-5785

裴炳錄=(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207동 1902호. 051-931-0917. 011-842-9547

宋仁武=(자택이사)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협성르네상스아파트 106-105호. (사무실)051-414-8147

趙仁容=(자택이사)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33 주공아파트 210-212호. 019-388-0634

趙泰和=(자택이사)부산시 북구

만덕3동 럭키아파트 205동 1504호. 051-949-7205. 016-851-7205

李基雨=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 016-575-4032

허봉호=삼성 캐피탈 상무. 011-708-2382

高昌佑=씨엔이컨설팅. 1월 9일 장모 별세. 018-210-6569

鄭宅根=LG유통 부사장. 02-2006-2017. 019-233-5010

### 제 29 외

朴東赫=대우조선해양(주) 조선영업1담당 상무. 02-2129-0129. 016-9689-2054

金泰熙=진단생기능의학회 창립총회에서 학회장으로 피선.

金鍾雲=진단생기능의학회 창립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

金富根=농협중앙회 부산대학교 지점 지점장. 051-512-0715. 011-9552-4234

全永祥=051-803-4600. 803-9500. 011-9218-1024

高聖濟=경기도 안양 평촌양무리교회에 목사

손성근(17회) 응급의료센터 '부산유일 합격'



손성근 동문(17회·동아대의료원 원장·사진)은 소속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와 시설 등에 과감히 투자, 위독한 목숨들을 구해냄으로써 보건 복지부 실사에서 '부산 유일의 합격'과 함께 계속 응급의료센터 자격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9500만원의 지원금도 받은 손 동문은 먼저 응급의학 전공 교수 2명을 비롯해 전담의사 6명·간호인력 30여명을 확보했다. 이어 초음파는 물론 동맥혈액검사기·급속수액주입기 등 최첨단 응급의료장비와 최신형 앰블런스 2대를 갖추었다.

강창수(21회) 학교법인 상주학원 이사장



강창수 동문(21회·대경에프앤비 회장·사진)은 최근 경남 남해의 상주중학교를 이끌고 있는 학교법인 상주학원 제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강 동문은 "상주중학교 도약을 위해 학력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2세교육의 '등불'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동문은 성균관대 사학과를 나온 후 대경실업 대표이사·부산청년회의소 회장·부산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사업가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박병곤(28회) 부산일보 편집국장 발탁



박병곤 동문(28회·사진)은 최근 부산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논설위원 재임 중 편집국장 직선제에 따라 기자들이 투표를 한 결과 후보 중 최다득표를 했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박 동문은 부산일보 기자 공채시험에 합격,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이래 편집·사회·경제·정치부장·편집부국장·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기자시절 '좋은 사람' '따뜻한 기자'로 평판이 낮으나 뉴스 발굴에서는 준족이었다. 수많은 특종을 발굴하는 등 '무서운 호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 음지의 이웃에 따뜻한 '햇볕' 되어...

### 꽃보다 아름다운 용마들의 사랑 이야기

음지에서 사는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따뜻한 '햇볕'이 된 용마들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보훈연금을 매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쾌척하는 추경석 동문(8회·전 건교부 장관, 20년째 치매 노인요양원 등을 찾아가 노래를 선사하는 남강수 동문(11회·가수·본명 이동휘), 나환자 재활촌에 성금을 기탁한 박일웅 동문(13회·1면에 관련기사) 등이 화제의 주인공.

보훈연금 10년째 성금으로 추경석(8회) 올해도 500만원



추경석 동문(사진)은 올해로 10년째 매월 나오는 보훈연금을 1년간 모아 두었다가 형편이 딱한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다. 추 동문은 올해도 지난 설을 앞두고 1년간 받아 모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연금 500만원을 국가보훈처에 기탁, 10여명이 혜택을 받게 했다. 추 동문의 이 같은 훈훈한 정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86명에게 4300여만원이 전해졌다. 부산동래고보 학생 때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1년간 옥고를 치른 추규영 선생(1977년 작고)의 장남인 추 동문은 국세청 감사관·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22년간 양로원 등 방문 남강수(11회) 노래 무료공연



시설 노인들에게 노래선물을 하고 있는 남강수 동문(가운데).

원로가수 남강수 동문(11회·본명 이동휘)은 22년째 양로원 교도소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노래를 선사하는 무료 공연을 베풀고 있다. 지난 1월27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치매노인 요양원 '샘터마을' 남 동문은 10여평의 거실을 차지한 71~102세 치매노인 20여 분으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노들강변' '새타령' '쾌지나칭칭나네' 등을 손수 치는 전자오르간의 반주에 맞춰 잇따라 불렀다. 노인들이 흥에 몰려 박수를 치고 더러는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모처럼 즐거워했다. 1시간여 노인들을 위문한 남 동문은 작별 인사를 한 뒤 서울의 양로원으로 위문공연을 위해 떠났다. 지난 1982년부터 대한

표광민(28회) 신임회장에 통영회 새 집행부 구성



통영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13일 오후 7시 시내 국보초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표광민 동문(28회·표광민 내과의원장·사진)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장동무 회장(18회)이 주재한 총회는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

선에서 황성남 동문(3회)을 고문으로 추대했고 새 회장 선출에 이어 부회장에 박중배(수석·30회·삼화철강 대표)·김우신 동문(35회·김우신성형외과의원장)을, 감사에 김광철 동문(27회·충무고 교사)을, 총무에 김기산 동문(33회·통영시 육지중 교사)을 각각 선임했다.

'대통합' 등 동기회 발전 목표 확정

"참여·대통합 이루는 동기회, 도움 주고 찾아가는 동기회, 투명한 동기회를!" 제31회동기회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해암뷔페 8층 연회실에서 올해 첫 이사회(정기회)를 개최, 동기회 발전 3대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남철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40명이 참석, 손영태 직전회장의 고문추대 및 안중수(총괄) 김성규 동문(총무 관리)의 총무임명동의안 등을 승인했다.

동기회 발전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참여·대통합 이루는 동기회=가족동반 산행·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하계단합대회, 홈페이지 개선 등 △도움 주고 찾아가는 동기회=장학제도·지역모임·취미활동 활성화 촉진(연1회이상 격려차 방문) △투명한 동기회=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각종 행사 결과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월말마다 재정현황보고) 등.

적십자사 자원봉사자가 된 남 동문은 22년 동안 생업을 뒤로한 채(부인 김경애씨가 화장품점 운영으로 집안 살림 책임) 이 같은 노래봉사(총 1만3000여 시간)를 하고 있는 연예계의 기인

(奇人)이다.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공연 때문에 밤무대에는 거의 서지 않고 방송 출연도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이지만 위문공연은 10차례나 된다.

제 22회 동기회 집행부 명단

- ◎ 고 문: 강봉기, 강성봉, 강운범, 구자룡, 김만성, 김영수, 김영진, 김원주, 김중수, 김학균, 김도살, 박성열, 박언표, 박재상, 우덕현, 유재진, 이대선, 이성모, 이성철, 이인준, 허인석, 황영환
- ◎ 명예회장: 장영근
- ◎ 회 장: 이상협
- ◎ 부 회 장: 김동욱, 김일봉, 김일준, 김진영, 노세현, 박승목, 변대석, 손연모, 송철규, 안진환, 이민성, 이철응, 장무성, 정상수, 조봉국, 주우실, 한태길
- ◎ 이 사: 강호일, 강화묵, 권상준, 금명환, 김대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순협, 김영철, 김진환, 김찬수, 김철호, 변종호, 서영훈, 손병우, 손봉용, 손용섭, 안종락, 유명윤
- 이상주, 이웅규, 이정식, 임성규, 정갑열, 최우현, 최일용, 최학봉, 한창길, 허효영
- ◎ 감 사: 김병수
- ◎ 총 무 단: 재무국장 정도인, 총무국장 조흥기, 기획국장 손용섭
- ◎ 직능회 회장: 둘둘산우회장 손용섭
- 둘둘기우회장 최일용, 둘둘낙시회장 김성재, 둘둘골프회장 김학균
- ◎ 지역회 회장: 서/중/동/영도구 강봉기, 진/동래/연제구 김영진, 남/수영/해운대구 김원주, 사하/북/강서구 서영훈
- ◎ 동기회 사무실: 부산시 중구 평평동4가 31-1 유림빌딩 4층, TEL.(051)243-1422 FAX.(051)254-6568